

산재사망 세계1위, 산재은폐 공화국 대한민국

- 사망재해는 OECD 평균 3배, 전체 재해는 평균의 5분의1. **이상한 산재통계** -
 노동부가 산안법 개악해서 **산재은폐 확대** 하겠다고!!

▶ 산업안전보건법 개악안 내용

하나 산재를 은폐한 사업주에게 “면죄부” 주는 개악안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하더니. 이제는 즉시 과태료에서 시정조치까지 부활 입법예고

노동부가 산재 발생 사실 인지 후 사업장에 **산재보고 시정조치**를 진행

- ➔ 15일 내 산재 보고 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주는 개악안!!
- ➔ 산재은폐 사업장 공공공사 입찰 제한, 명단공표, 감독강화 등 산재은폐 방지 제도 무력화!!!

둘 산재보고 기준을 현행 휴업 3일에서 4일로 완화



노동부, 2014년 산재보고를 요양 4일 ➡ 휴업 3일로 개악 (산재통계 30% 감소된 것처럼 둔갑)

휴업 3일에서 4일로 또 기준 완화 (행정편의에 의한 것 외에 근거 전무)

- ➔ 산재사망은 세계 1위. 보고 기준은 세계 최저
- ➔ 현장에서는 통원치료 강요하고, 사업주 맘대로 휴업일수 조작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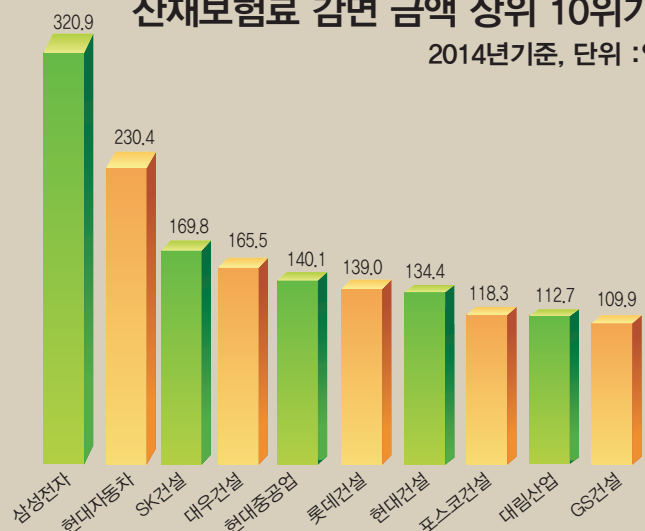
원자력 발전공사 현장에서 2013년부터 2년간 118명의 산재를 공상 처리로 은폐한 **현대건설**



2013, 2014년에 적발된 산재은폐 건수만 216건 최근 5년간 계열사 11개 사업장에서 955억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보험료 감면 금액 상위 10위기업

2014년기준, 단위 :억원



대기업은 산재은폐 무신고 정부는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 각종 연구 보고서, 산재의 실질 규모를 정부 통계의 13~30배로 추정

시민과 노동자 모두를 위협하는 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국회 입법 발의에 노동부는 도급인가 제도만 고집

도급인가 사업장 고려아연 황산누출 하청 노동자 사망



비정규직이 50%가 넘는 시대.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하철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19세 청년노동자의 산재사망, 똑 같은 사망사고가 3번째

케이블통신 설치나 에어컨을 수리하다 추락한 서비스 노동자들의 죽음이 이어집니다.

4단계에 걸친 하도급으로 형광등 설치철거 작업에 투입되어 20명의 노동자가 수은에 중독 되고, 불법 매립으로 공장인근 주민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는 노동자도 죽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합니다. 유해위험 업무 상시 고용 도급금지 법 개정을 추진하던 노동부는 경총이 반대한다고 입장 선회. 수 십년 동안 실효성도 없는 도급인가 제도를 고집합니다. 도급인가 대상 사업장이었던 울산 고려아연에서는 2016년 황산 누출로 하청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구의역 사고장소의 추모 모습



케이블통신노동자 위험작업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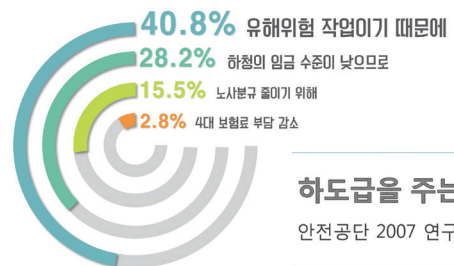


남영전구 광주공장 철거작업 중 집단 수은 중독과 주변 하천 오염

재벌 대기업이 하도급을 주는 이유 1위는 '유해위험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청·파견업체에게 전가된 위험업무는 하청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으로 이어져, 중대재해 사망자 40.2%가 하청 노동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진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삼성 불산 누출, 하청 노동자가 줄줄이 죽어나가도 원청의 처벌은 없습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은 산재은폐로 **매년 수백억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는 이유, 안전공단 2007 연구보고서

20대 대기업 산재보험료 감면 3,461억

삼성 869억,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858억, LG 242억, SK 234억, 2012년 감면



산재은폐 확대 산안법 개악안 폐기 !!
위험 업무, 생명안전 업무 외주화 금지!!